

“ 인생의 무거운 짐 ”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짐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랑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거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천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는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을 자인하고 피조물 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로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족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크리소스톰 목사를 황금 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소스톰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빛이 비쳐지지 않을지언정 크리소스톰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고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져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옥여쌍을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질병,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한국장로신문 [제 1389호] 2013년 11월 16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방역수칙 강화로 이번 주일도 주일1부 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함께 드리며, 함께 보내는 영상예배 지침에 따라 예배시작 5분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하고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일 1부 예배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사정상 1부 실시간 영상예배에 접속하지 못하신 분은 2부나 3부 또는 편리한 시간에 아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830_sermon.jpg

9월2일부터 수요일 2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찬양예배 및 새벽기도회는 종전과 같이 진행됩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건성을 꼭 지켜주시고 아울러 온종일 주일성수의 거룩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경, 양재성)한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기회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성령)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박은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 사지, 에베(인도), 스토르(보리), 필리몬, 프란시스코, 수레시, 수버쓰, 알로롱, 비사누(베트남), 보디소프, 린롱, 수린준(베트남)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산진(홍성인)필리핀,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현)미디카(스리)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집과 식구들 ”

■ 고전 3:10-15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의 은총이 이 집의 견고한 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터를 닦으셨으며 하나님이 직접 모든 필요한 재료를 다 구비하셨고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1. 하나님의 식구들의 상태와 성분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은 종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딤후 3: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자들입니다(엡 4:24). 하나님의 식구들은 세상에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혹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실 가족입니다(엡 2:19).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는 것은 이 집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든 연관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이고(시 103:10), 또 하나는 아버지의 집 외에는 다른 안식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 하나님의 집은 최상의 수고와 헌신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식구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분은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12-13절)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많다고 하면서 금 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한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딤후 2:20).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각각각색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식구들에게 합당한 자질은 최상의 수고와 헌신이 수반된 것이라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을 금은과 같은 보석으로 지어야만 그 크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2절이 지적하고 있는 금은보석과 나무와 풀 및 지푸라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단어들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는 그러한 물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최선의 수고와 땀을 의미합니다. 즉 금과 은과 같은 보석처럼 빛나는 헌신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은 수고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공적을 밝힌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얼마나 수고의 땀과 눈물을 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땀과 눈물을 단순한 형식이나 체면치레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다하며 몸에 뚫린 구멍마다 땀과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열정과 헌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증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고를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는 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식구들입니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처소이며 이 집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산 자들입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보석 같은 사람들로 잘 꾸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수고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 받아야 할 단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상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인내와 절제가 다 동원되는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욱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광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인터넷 영상	
III 오후 2시	인터넷 영상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3: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20(시 33)...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찬 송 Hymn39(39)...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고전 3:16-17...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 찬 양 Anthem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서창원 목사
 - * 찬 송 Hymn207(243)...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찬양예배(인터넷 영상)

-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50:15 인 도 자
- 찬 송 357(397)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수 6:1-7 인 도 자
- 설 교 ...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으니” ... 인터넷 영상
- 찬 송 180(168) 다 함 께
-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인터넷 영상)

- 오후 7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 목 도 다 함 께
- 성 시 시 43:5 인 도 자
- 찬 송 508(270) 다 함 께
- 기 도 가 족 중
- 성 경 뱀전 1:13 인 도 자
- 설 교 ... “나그네 신앙(1)” ... 인터넷 영상
- 합심기도 인터넷 영상
- 주기도 인터넷 영상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13명	282명	1,495명	1,820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8/2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8월23일	헌 금	6,422,000	
	선 교 비		38,300,500
	구 제 비		300,000
	비전2020		5,680,000
	출 판 비		210,000
	연합사업비		500,000
	지원교회		2,600,000
	인 건 비		6,072,000
	복리후생비		526,600
	통 신 비		668,230
	수도광열비		26,200
	차량유지비		388,020
	환경유지비		427,800
	수선유지비		342,000
	식당운영비		176,000
	합 계	6,422,000	56,217,35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